

'한옥마을 전주' 프로바둑팀 창단

전주시, 한국기원과 업무협약 체결... 12월~내년 5월 바둑리그 참가 예정

전주시가 프로바둑팀을 창단해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9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 한국기원 관계자, 이창호 명예감독,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참가할 전주시 바둑팀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9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기원 관계자, 이창호 명예감독,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5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참가할 전주시 바둑팀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한국기원은 '한옥마을 전주' 바둑팀을 창단해 향후 1년간 성공적인 리그 진행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옥마을 전주팀을 이끌어갈 명예감독으로는 전주 출신의 이창호 9단이, 감독은 양건 9단이 각각 선임됐다. 단장은 이원득 전북특별자치도 바둑협

회장이 맡는다.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선수가 선발된 이후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 까지 전주시를 비롯한 8개 팀이 바둑

리그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재호 한국기원 사무총장이 전주 출신 이창호 9단의 휘호 바둑판을 우범기 시장에게 전달하며 바둑팀 창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시장은 세계적인 바둑 스타 이창호 9단을 배출한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아의대국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기원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국 바둑은 전주 출신의 이창호 9단을 비롯한 최강자들을 꾸준히 배출하며 세계 최정상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면서 "한옥마을 전주팀이 전주를 넘어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명문 팀으로 자리 잡고, 앞으로 우수한 바둑기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돌이함께'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전주시설공단 직원들

안전사고 원천 차단 '돌이함께'

전주시설공단, 2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릴레이 캠페인 전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돌이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근로자 단독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이다.

'돌이함께'는 2인 1조 작업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다리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화기 작업 △위험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위험장소 작업 △전기 작업 △시설 안전 점검 등 작업 전반에 2인 1조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부서별로 돌아가며 중점적인 위험 요인을 선정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수립한 뒤

'돌이함께' 문구가 적힌 어깨띠나 현수막, 팸플릿 등을 사용해 인종만들기 위해 '돌이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공단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만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로 삼고 있다.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알파벳 'S(Safety)'를 덧붙인 '으씩(ESSG) 경영계획'을 수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내실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한 이사장 직속으로 '안전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직원들도 일하기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돌이함께' 릴레이 캠페인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전북소방본부, 합동 연료 품질·안전 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 전북본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화차, 구조차 및 구급차 등에 사용하는 연료를 대상으로 연료 품질·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화차, 구

급차 등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가짜 석유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소방차량 연료에 대한 품질 점검 △이상 연료에 대한 공급업체 역추적 점검 및 유통 차단, 전북소방본부는 △소방 차량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급업체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시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본부장 윤종민)는 "국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방지하는 한편, 안전한 석유류 시장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실상사, 진북동에 백미 기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한국불교대학교 실상사(주지스님 김순덕)는 지난 6일 추석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100포를 진북동 주민센터(동장 김성군)에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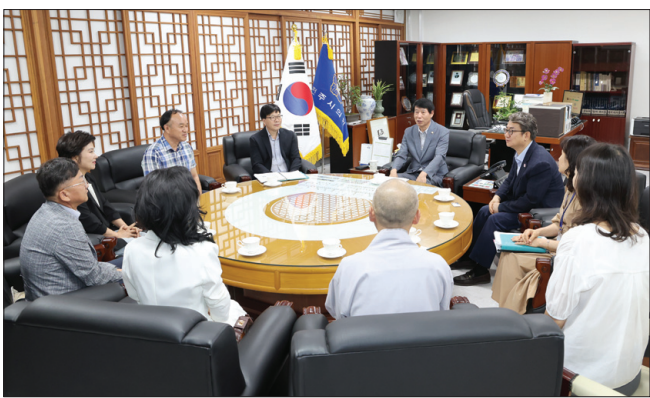
실상사는 매년 꾸준한 기부를 행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쌀을 전달하며 이웃에게 지비 배움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실상사 김순덕 주지스님은 "올해는 폭염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외계층이 많은데,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나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노인복지관연합회, 현안 논의·협력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지난 6일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최재훈)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특성화 및 건강관리 사업 등 현안에 대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특성화 및 건강관리 사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욱기 기자

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과 특성화 사업, 운동 처방 관리 및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등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사업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재훈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장은 "노인복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으로 복지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이고 발전적 운영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시의회에서도 활발한 복지관 운영과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동고사, 풍남동에 추석 맞아 백미 21포 나눔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동고사(주지 김형민)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풍남동주민센터(동장 허민석)에 백미 21포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저소득 가정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동고사 주지스님 김형민 스님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서로 도우며 소외된 이웃이 없는 자비로운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풍남동 허민석 동장은 "주지스님과 신도분들의 깊은 나눔에 감사드리며, 귀한 쌀을 잘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고사는 매년 꾸준한 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도 백미를 기부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김욱기 기자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은 **완주의희생만을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 **실익이 전혀 없는 완주 전주의 행정통합을 결사반대**합니다.

-완주군의회의원 일동-

완주전주 통합 반대

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전자서명 QR코드

완주군의회
Wanju County Council